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양 흥 권* · 안 관 수**

A Study on Enhancement of the Lifelong Learning Function at Seoul Museum of History

Heung-Kweun Yang* · Kwan-Su An**

요약 :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전통적 형태의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 시민의 학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시역사박물관인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현황과 평생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서울역사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평생교육 기능을 논의하였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다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교육 참여자가 소수이다. 향후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평생학습 지원에 초점을 두고 박물관을 경영하여야 하며, 박물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박물관의 하위 기능이 평생교육 기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민의 박물관 이용을 극대화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평생학습사회, 박물관 교육, 미술관 교육, 역사박물관, 박물관

ABSTRACT : As the beginning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the learning activity by citizens is being accomplished not only in conventional schools, but throughout other institution. The lifelong learning functions of cultural facilities like museums or art galleries are being activated.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lifelong learning in Seoul Museum of History to present the method to activate the lifelong learning function. For this, the museum's educational functions and lifelong learning conditions have been analyzed. After that the plan to activate lifelong learning functions at the museum in the future has been presented. Although there are many lifelong learning programs in operation at this time, the contents of learning programs and learning methods aren't diverse. In order to activate the lifelong learning function of Seoul Museum of History in the future, the museum's management should focus on lifelong learning support for citizens and each of its functions has to be restructured in a form of supporting the learning function by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function of the museum.

Key Words : lifelong learning society, museum education, historic museum, museum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부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Lifelong Learning Cent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논문주작성자인.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I. 서론

평생학습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지 오래이다. 사회적으로 ‘학습(learning)’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처럼 흔하게 사용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학습이라는 단어가 오늘날과 같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회변천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사회변천에 따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유지와 작동에 필요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변화해 왔으며, 그동안 이 같은 변화의 선두에 있었던 것이 정치, 경제 부문이었다면 교육은 변화의 다소 후발주자이다. 교육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육 형태의 변화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학습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교육 변천은 과거와 같이 교육 주체 변화, 교육 대상자 확대, 교육제도 체계화, 교육 공공성과 교육 평등화 강화, 학제개편 등과 같은 단편적 변화이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방위적 변화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계의 변화는 교육계 자체의 자발적인 변화이기보다는 사회적 요구와 압력에 의한 수동적 변화이다.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변화를 한 단어로 압축하여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라는 용어로 표현 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인간주의적 평생교육이 제창된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오

이시디(OECD)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촉진이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핵심적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World Bank, 2003). ‘평생학습사회’는 ‘평생’, ‘학습’, ‘사회’라는 세 가지 단어의 조합이 의미하는 것처럼, 학령기만의 교육이 아닌 평생에 걸친 교육, 교육 제공자에 의해 좌우되는 교육이 아닌 학습자 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중요성이 인간의 성장과 사회적 전 부문의 발전과 진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이다. 평생학습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제 교육이 과거처럼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학교만이 교육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도 약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는 사회 전반적 현실로 나타나는 학교 외 부문에서의 교육기능의 확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오늘날 교육은 학교 밖의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오래 전부터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구성하여 조직학습을 통한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체 내에 학교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체도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비정부조직(NGO)에서는 사회운동실천가 양성과 운동이념 확산을 위하여 교육부서가 존재하며, 언론사, 백화점 등에 설치된 문화센터는 여성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기관으로 각광받고 있다. 관공서에서도 높은 문턱을 허물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교 기관에서도 교육부서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문화시설로 분류되었던 박물관, 미술관 등 시설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된지 오래이다.

이 같은 기관 중 박물관과 미술관은 타 기관과는 다른 교육적 특성을 갖는 기관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양한 교육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전시 활동 자체가 관람객의 무형식 학습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애초부터 교육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다. 미술관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서가 있으며, 이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Yang, 1999: 90~114). 특히, 박물관은 예로부터 교육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박물관 이용자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자유롭게 체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개인은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며 다양한 경험을 조직, 통합하는 교육의 장이다(정용재, 2004: 113~114). 이 같은 특성에 따라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박물관을 성인학생을 위한 형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Buswell, 1991: 5~25). 오늘날 박물관 경영자들은 이 같은 박물관의 교육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이용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박물관 직원들은 박물관 전체가 이용자들의 학습환경

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ee, 2002: 15~20). 이제 박물관의 교육기능은 더 이상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정지현, 2006: 300~302). 또한, 박물관 이용자의 학습지원에 대한 박물관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특히, 도시역사박물관은 해당 도시의 역사와 유물을 수집, 발굴, 연구, 전시, 보존하여 해당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박물관과는 달리 해당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역사박물관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전시, 보관, 연구, 계승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ooks, 2004: 18~23). 즉, 도시역사박물관은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지역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 이 같은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유일한 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동 박물관은 2002년 5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개관하였다.

이 연구는 이처럼 2002년에 설치된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 시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 현재 박물관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은 현재

까지 문화시설이나 전시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던 박물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있는가,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 중 도시역사박물관은 다른 종류의 박물관과는 달리 어떤 독특한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이에 근거하여 도시역사박물관의 한 사례인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은 어떠하며, 이 같은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에 대한 모색은 이후 일반적 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의 교육부서에 근무하는 학예사를 면담하였으며, 박물관의 각종 시설을 관찰하고, 전시물을 관람하였고, 담당자로부터 박물관 운영현황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같은 제반 자료를 토대로 박물관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II. 박물관과 평생교육

1. 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현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은 문화시설로 분류되어 각기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같은 기관이나 시설은 문화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기관들은 문화기관이나 시설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이고 교육시설이다. 평생교육은 교육의 형

태를 형식성의 정도에 따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같은 관점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시설의 기능을 바라보면, 이들 기관들은 과거부터 시민의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을 담당하여 온 기관이다. 여기서 비형식 교육이란 각 기관에서 관람객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비교적 형식성이 약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의미하며, 공연장의 경우 각종, 공연활동은 그 자체가 문화활동임과 동시에 무형식 학습이다. 이처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은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시설로 기능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무형식 학습을 촉진하는 대표적 교육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리고 과거에 사회적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박물관이 현대사회에 이르러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박물관의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박물관의 대중성 확보로 인하여 박물관의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대중을 위한 문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박물관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보아, 2003: 16~23).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같이 학습자, 교육내용, 교수자, 교육환경이 체계적으로 계획된 교육이기보다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경험을 구성해 가는 학습자 주도의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성격의 교육이다(Mayer, 2005: 14~16; Vallance, 2004: 352~353).

이 중 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육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은 오래된 골동품, 유물, 그림 등을 단순히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열린문화공간, 평생교육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참여 대상도 어린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린 시설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1: 318~321).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이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족을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형태는 특별강연, 체험학습코너 운영, 체험활동, 워크숍, 특별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이 같은 교육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것은 박물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실물교재가 비치되어 있어서, 실물교육이 가능하며, 이 같은 실물교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깊이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흥미 유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학습자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실물자료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한 학습의 효과도 높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이 제도화되고 경직되어 있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 박물관의 교육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전시물과 표본을 활용한 실물교육이 가능하며, 학생들이 소장품을 보고 교사나 안내자에게 질문을 하는 형태의 토론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소장품을 통하여 인간의 문화, 역사, 자연생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력을 깊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박물관의 전시물을 통하여 직접 외국을 둘러보지 않고도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밖에도 박물관은 학생들이 능동적 학습자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활동에 학부모를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통합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자연, 생물, 과학, 역사,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김중훈, 2000: 74~75). 또한, 박물관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자발적 학습참여를 촉진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관련된 소장품을 전시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실물자료, 인쇄물, 시청각 교육매체 활용을 통하여 통합적 학습을 촉진한다.

박물관 교육은 이처럼 학생교육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교육에 있어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 박물관은 성인학습자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소장품을 주체적으로 관람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학습

을 가능하게 하며, 생생한 역사·문화유산을 전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으며,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계획보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2. 도시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의의

박물관은 기원전부터 국왕들이 선대왕들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각종 보물이나 전리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한데서 기원하였으며, 1680년대에 이르러 영국의 아쉬몰(Ashmole) 경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옥스퍼드대학에 기증하면서 아쉬몰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수집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공공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교육철학회, 2001: 7~8).

박물관은 설립운영 형태, 소장품의 종류, 이용자나 전시장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설립운영 형태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분되고, 전시되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전시하는 종합박물관, 고고, 인류, 역사, 과학, 산업, 민속, 미술, 향토자료 등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용자에 따라서 학생과 교직자를 위한 학교박물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박물관, 특수 분야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박물관으로 구분된다. 전시물의 설치 형태에

따라서는 옥내박물관과 옥외박물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도시역사박물관은 다양한 박물관의 종류 중 특정 도시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말한다. 도시역사박물관은 타 박물관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명을 가진 박물관의 범주에 속한다. 동시에 역사박물관으로서 수장품은 다른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장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박물관은 영토로서의 도시와 관련된 매우 광범위한 주제와 관련되고, 소재하고 있는 도시와 시민들과 연관된 매우 다양한 유형의 주제를 포괄하여야 하며, 어떤 박물관이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 사회, 도시를 염두에 두고 수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명과 성취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Zack Pero, 2003: 9~11).

서울역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서울역사박물관은 유서 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의 대표적 문화중심이 되고자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설립목표로 “서울의 전통문화와 역사보존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애향심 고취,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와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서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서울의 세계적 위상 고양” 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서울의 전통문화와 역사의 보존’,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애향심 고취’, ‘서울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 ‘서울시민에 대한 문화향유와 평생학습 기회제공’, ‘문화기관을 통한 서울의 이미지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역사박물관은 타 종류의 박물관보다 더 많은 교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도시역사박물관이 갖는 지역평생교육 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선 도시역사박물관은 해당 도시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역사박물관은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시민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기관이다. 시민들은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며, 각종 문화행사 참여를 통해 무형식 학습을 한다. 또한, 도시역사박물관은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역사박물관 직원들은 소장품 수집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시역사박물관에서의 전시는 연구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지식을 일반인에게 소통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도시역사박물관은 지식 창출 기관임과 동시에 지식 소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평생학습조직이자 평생교육기관이다. 또한, 도시역사박물관은 시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평생교육의 장이다. 도시역사박물관

은 시민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도시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Benn, 2000). 도시역사박물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물, 문화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역사박물관의 전시물은 해당 지역사회의 역사, 문물, 문화 그 자체이다. 시민들은 도시역사박물관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게 되며, 이 같은 학습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형성한다. 이 같은 측면으로 볼 때 도시역사박물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형성하는 지역주민 교육의 구심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시역사박물관은 소장품이나 전시물의 내용적 측면에서 지역학 교육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만남과 교류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시민들은 도시역사박물관의 전시물의 관람과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를 통하여 교류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능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역사박물관은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교육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최근 도시역사박물관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도시역사박물관의 주된 이용자인 시민들은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문화향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문화향유

는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볼 때 무형식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역사박물관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문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도시역사박물관은 시민들이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는 문화향유와 문화학습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넷째, 도시역사박물관은 시민의 도시에 대한 종합적 학습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역사박물관은 해당 도시의 과거의 문물과 역사에 대한 학습의 장일뿐만 아니라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는 공간이다. 도시역사박물관은 설립취지가 해당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보존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해당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즉, 도시역사박물관은 도시의 과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향점에 대한 시민 대중의 담론형성의 공간으로도 기능 할 수 있다. 이 같은 도시의 미래 담론의 창출은 도시에 대한 종합적 학습으로 가능하다. 도시에 대한 종합적 학습이란 도시에 대한 입체적 학습이다. 여기서 입체적이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학습과 내용적 측면의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측면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 도시의 문화유산을 통한 도시의 과거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도시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학습, 그리고 도시의 미래 창조와 관련된 계획수립에 대한 학습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III.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

1. 서울역사 박물관 개관

1) 박물관 건립

서울역사박물관의 건립은 비교적 장기간의 건립 추진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5년에 경희궁지내 박물관과 미술관 유치를 검토하였으며, 1985년에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986년에 19명의 위원이 참여한 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이 본격화되었으며, 1987년과 1988년에는 박물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3년에 박물관 건물 착공이 시작되어 1997년에 연면적 6,100평 건축면적 2,253평의 박물관 건물이 준공되었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박물관의 전시시설이 설계되었으며, 2002년 5월 전시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1년에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2년 5월 21일 개관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04a).

서울역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유서 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 국민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중심”으로서의 기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구체적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의 전통문화와 역사 보존,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서울시의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서울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 등이다(서울역

사박물관, 2004b). 이처럼 서울역사박물관은 도시역사박물관, 공공박물관, 종합 문화공간으로서 열린 박물관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2) 박물관 시설 현황

서울역사박물관의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99,584㎡, 건축면적 7,449㎡, 연면적 20,166㎡ 규모의 건물이다. 층별 시설 현황은 <표 1>과 같이 지층에 기계실과 수장고가 있고, 지상 1층은 중앙홀, 기획전시실, 기증유물전시실, 카페테리아, 유아방 및 기타 시설과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 2층은 전체 2,827.69㎡의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4개의 상설전시존과 정보의 다리, 체험공간 및 터치 뮤지엄, 문화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서울역사박물관의 시설구성

구분	실 명	면 적	
		㎡	평
지층	기계실 및 수장고	5,016.13	1,517.37
1층	중앙홀	1,656	501
	기획전시실	1,357	409
	기증유물전시실	1,123	340.39
	카페테리아	289.1	87.6
	유아방 및 기타	312	94.38
	강당	294	88.33
2층	사무공간	2,827.69	855.37
3층	상설전시실 1존	522.51	158.05
	상설전시실 2존	684.87	207.17
	상설전시실 3존	1,347.68	407.67
	상설전시실 4존	701.96	212.34
	정보의 다리	547.5	165.61
	체험공간 및 터치 뮤지엄	615.05	186.05
	문화정보센터	688.04	208.13

※ 시청각실 : 지상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44㎡임.

※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2005), p. 34.

그 밖의 편의시설로는 1층에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유아놀이방 등이 있으며 옥외시설로 매점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각 시설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계실은 시설 유지와 관련된 전기, 온도, 습도,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수장고는 수집된 전시물을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중앙홀은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중앙통로이며, 전시공간인 1층의 기획전시실에서는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전시하는 공간이다. 3층의 상설전시실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상시 전시하는 공간이다. 기증·기탁실은 시민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기증 유물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박물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실 입구 벽면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게시하고 있다. 3층에 있는 정보의 다리는 상설전시실 1존과 2존을 가로지르는 중층에 설치된 정보 검색장으로 전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서울의 역사·문화 등 각종 정보를 첨단기기를 통해 검색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하여 흥미롭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층에 위치한 체험공간과 터치뮤지엄실에서는 상설전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전시 유물의 복제품 일부를 비치하여 체험학습을 통하여 물품의 쓰임새와 사용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의 기능을 살펴보면, 1층에는 뮤지엄샵과 카페, 강당, 유아놀이방 등이 있는데, 뮤지엄샵은 박물관의 기념품과 서울관련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며, 카페는 관람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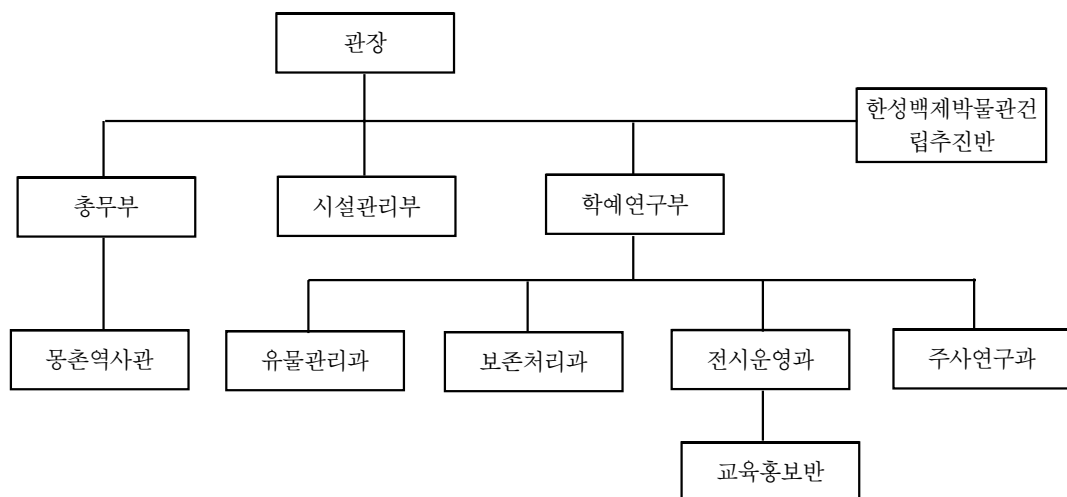
물론 일반 시민과 박물관 주변 직장인들이 이용한다. 강당은 각종 행사, 학술대회 및 예술공연, 영화상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또한, 유아놀이방은 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2층에 위치한 시청각실은 세미나, 보고회, 회의 등 소규모 회의와 연구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3층에 있는 문화정보센터는 서울의 역사·문화관련 각종 도서 및 영상 자료를 열람하고, 정보검색과 도서검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3) 박물관의 기구 및 직원 현황

서울역사박물관의 조직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관장 아래 총무부, 시설관리부, 학예연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총무부 아래에 몽촌역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예연구부에는 유물관리과, 보존처리과, 전시운영과, 조사연구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시운영과 아래에 교육홍보반

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 조직으로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기능을 개관하면, 총무부는 박물관 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서수발, 조직, 인사, 예산 등 일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특별한 기능으로서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리, 박물관 백서·연보발간, 박물관 관련 도서의 출판과 보급, 박물관 홍보 관련 사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설관리부는 전산시스템 운영, 사무자동화와 홈페이지 운영, 시설, 청소, 경비 등 용역관리 운영, 박물관 조경, 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등과 같은 박물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물관리과에서는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이관, 평가, 등록 등 유물관리에 관한 행정적 업무와 수장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존처리



<그림 1> 서울역사박물관 기구표¹⁾

1) 서울역사박물관(2005), p. 24.

과에서는 소장유물의 보존처리, 수리, 유물 수장 환경과 전시환경에 관한 사항 등 유물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전시운영과에서는 전시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운영과에서는 문화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도시역사 자료의 발굴과 수집,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직원 현황은 2004년 현재 관장 외 전체 2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구성은 관장을 비롯한 일반 행정직과 기능직,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인 학예연구관 4명, 학예연구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역사박물관, 2004b). 서울역사박물관은 박물관의 직원 외에 도슨트(docent)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슨트는 전시물에 대하여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3년 현재 총 47명의 도슨트가 활동하고 있고, 일반자원봉사자 77명은 정보데스크 안내, 전시장 지킴이, 각종 행사지원, 자료실 업무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 분석

이 절에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안하였다. 연구자가 구안한 분석틀은 <표 2>와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교육형태,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 교육

참여자 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자가 구성한 분석틀로 서울역사 박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한계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표 2>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현황과 한계점 분석틀

항목	내용
교육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
교육형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 형태
교육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간 및 기간
교육참여자 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1)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전시활동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04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와 같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박물관대학, 박물관교실, 외국인 문화교실, 박물관 체험교실, 역사탐험교실 등이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물관 대학’은 서울의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박물관의 상설전시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2004년에는 이 같은 교육이 매주 1회, 1일 3시간 단위로 전체 10회에 걸쳐 2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활동

으로 ‘박물관 교실’이 있다. 박물관 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교실은 매주 토요일 1일 3시간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2004년에는 1회당 3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한편, 외국인문화교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2004년에는 총 3회에 걸쳐 1일 3시간의 한국화그리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활동은 ‘박물관 체험교실’이다. 박물관 체험교실은 박물관의 전시유물 가운데 특정 공예품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서울의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과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

게 하는 교육이다. 박물관 체험교실은 성인, 초등학생,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체험교실은 1주일에 1회 1회당 3시간 총 8주에 걸쳐 전통공예품을 제작하는 실습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교실’은 시청각교육과 전통문화에 대한 실습활동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체험교실’은 일회성 교육으로 시청각교육, 전시물 관람, 전통공예품 만들기 활동을 2시간 동안 실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역사 탐험교실’은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교육으로 시청각교육, 전통문화 체험활동, 학습자료 작성 등의 활동을 1회 3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표 3>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회, 명, 시간)

구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1회	전체	1회	전체
상 반 기	박물관대학	성인(20세 이상)	10	250	250	3	30
	박물관체험교실(제1기)	성인(20세 이상)	8	70	70	3	24
	전통문화체험교실	초등 4~6학년	20	40	776	3	60
	가족체험교실(제1기)	초등 1~3학년과 학부모	12	40	480	3	36
	어린이역사탐험교실	초등 4~6학년	12	30	360	3	36
	청소년박물관교실	중학생	10	30	300	3	30
하 반 기	박물관대학	성인(20세 이상)	10	250	250	3	30
	박물관체험교실(제2기)	성인(20세 이상)	8	70	70	3	24
	박물관체험교실(제3기)	성인(20세 이상)	8	70	70	3	24
	전통문화체험교실	초등 4~6학년	20	40	723	3	60
	가족체험교실(제2기)	초등 1~3학년과 학부모	10	40	400	3	30
	가족체험교실(제3기)	초등 1~3학년과 학부모	2	34	68	3	6
	어린이 역사 탐험교실	초등 4~6학년	12	30	360	3	36
	청소년박물관교실	중학생	9	30	277	3	27
	외국인역사문화교실	외국인학생	3	26-31	85	3	9
합 계	7종 14개 과정		117회		4,945		453

※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2005), p. 88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행사로는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날의 전통놀이, 일회성 공연, 콘서트 등이다. 문화행사는 2004년에 총 6회 걸쳐 개최되었다. 일회성 문화행사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시민들에게 무형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 운영 실적은 2004년의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총 교육 횟수는 117회이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총수는 4,945명이며, 교육시간은 453시간이다.

2) 서울역사박물관 평생교육의 한계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박물관대학과 청소년박물관교실 등과 같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서울의 역사·문화에 관련된 지식을 교육하는 특강 형태의 교육이다. 박물관대학과 청소년박물관교실은 교육방법은 유사한데 교육대상자가 서로 다르다. 박물관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박물관교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두 교육 프로그램은 장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참석자들이 서울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은 장점이지만 각각의 교육대상자가 제한된 일부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점이다. 예컨대, 2004년에 이루어진 박물관대학의 참여자 수는 1회 250명, 2회 250명으로 총 500명이며, 청소년 박물관교실의 참여자 수는 상반기에 300명, 하반기에 277명으로 총 577명에 불과하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두 번째 형태는 박물관체험교실이다. 체험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는 박물관 체험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가족체험교실 등이 있다. 박물관 체험교실의 박물관대학과 청소년박물관교실과의 차이점은 교육방법이 강의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체험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은 비교적 다양한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물관 체험교실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전통문화 체험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교육의 제한점은 하루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회성 교육이라는 점이다. 박물관 체험교실은 박물관대학과 박물관교실과는 달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의 경우 박물관 체험교실의 참여자 수는 총 210명이고, 전통문화 체험교실의 참여자 수는 1,499명이며, 가족 체험교실의 참여자 수는 총 948명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역사탐험교실’과 ‘외국인역사문화교실’이다. 이 같은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일회성 강좌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어린이역사탐험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 역사,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며, 외국인역사문화교실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화를 그리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두 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제한점은 교육대상자가 매우 한정적이며, 교육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앞 절에서 기술한 박물관의 문화행사를 통하여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열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하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이 제한적이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중학생, 외국인 학생 등 서울시민 중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다. 연간 총 참여자 수를 보면 2004년에는 총 4,945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인구가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1,0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극소수의 시민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경우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박물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은 강의식 교육과 체험학습 형태 위주이다. 체험학습은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한 교육방법이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학습은 공예품을 만드는 실습활동과 같은 일률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형태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흥미롭고 실감나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시청각교육, 유적지여행, 선조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체험 활동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면에서 볼 때 체계성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않다. 이 같은 점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비교적 10주에 걸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인 박물관대학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박물관대학의 강의 내용은 조선시대 역사, 문화,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분절적이고, 교육프로그램의 전후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박물관 대학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10주에 걸쳐 일주일에 한번 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므로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의 계열성과 계속성이 담보 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박물관체험교실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매듭’을 주제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8주에 걸친 교육의 전 과정이 매듭에 대한 실습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외국인역사문화교실의 경우에도 한국화그리기 실습만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넷째,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이 소개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교육자원을 충분히 연계·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평생학습사회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화두는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관련 주체 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활용하고 있는 교육자원은 박물관대학의 경우 각 대학 관련학과와 박물관 관련 기관의 인적자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박물관체험교실의 경우는 서울시 무형문화 기능보유자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박물관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재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박물관의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기능은 그 자체가 박물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사박물관 인근에는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향후 박물관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도시역사박물관의 본연의 목적인 서울시민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지역학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이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배양과 도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일꾼 육성에 있다. 요컨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학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같은 교육은 1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수준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추수교육과 시민의 참여와 봉사활동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IV.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기능 활성화 방안

서울역사박물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서

울시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특히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이해와 문화향유를 통하여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서울역사 박물관은 그 기능의 하나로 서울시민들에게 문화향유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는 평생교육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앞 장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조직과 각 부서의 역할과 기능 및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현재 전시기능 외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박물관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은 평생학습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박물관의 주된 기능인 전시 기능도 광의로 보면 교육 기능이며 따라서 박물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도시역사박물관은 소재지 시민의 평생학습 시설로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 기관이다. 그것은 도시역사박물관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도시의 역사·문화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나아가 시민들이 해당 도시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지역학 교육의 중심시설로 기능하여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역사박물관은 지역사회 내 타 평생교육 시설

보다도 시민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박물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는 박물관의 기존 기능인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의 전반적 기능을 교육기능과 결합하고 연계하는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육방법을 다양화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지역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내 교육관련 주체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박물관 운영 전반을 교육의 관점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의 체계화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기회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은 물론 타 지역과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교육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교육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참여자를 분류하고 그룹핑하는 것이 요구된다. 잠재적 참여자의 그룹핑 기준은 다양한 척도가 적용 될 수 있지만 연령에 따른 구분과 직업 영역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같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을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터

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잠재적 학습자 집단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비 재학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활동하는 직업 영역에 따라 구분하면, 도시역사박물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교사, 관광업 종사자, 공무원 등이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다. 각각의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목표를 정립하고 각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먼저, 초·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학생들의 교과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실물교재를 소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내 학교 학생들과 전국의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시품을 둘러보는 관광 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현장과 연계하여 박물관을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보다 깊이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박물관 내에서의 강좌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벗어나 서울 시내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사적답사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관련학과 학생은 물론 비관련학과 학생들까지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대학생 중 박물관과 관련된 학과 학생들에게는 박물관을 학문

연구와 실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을 초·중등학교 학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도우미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시민들의 직업분야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학생교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부 여행자들에게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전달하고 홍보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외지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단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의 다양화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에서의 강의식 교육, 공예 실습활동 등의 방법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즉, 앞 절에서와 같이 교육 참여대상에 따라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을 달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대상자의 현재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학습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가 교육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은 앞에서 분석

한 바와 같이 형식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교육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형식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도 하나의 비형식 교육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 망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교육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교육방법 다양화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이용자와 참여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박물관 방문을 통한 실물견학과 시청각교육, 실습 등과 더불어 서울시내 유적지와 시설을 연계한 순회학습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즉, 단기 견학프로그램과, 몇 시간 단위의 강좌, 시청각 교육, 하루 이틀간의 도시 순회 현장견학, 주말과 방학기간의 가족단위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와 수업제가 본격화되면 가족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서울역사박물관도 이 같은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수 주간, 수 개월간의 서울시내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고, 박물관과 역사·문화 관련학과 학생에게는 박물관을 전공에 대한 이론학습과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박물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장강좌

형태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이 찾아가는 강좌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 전체의 재산이며, 서울시민 전체의 문화시설, 평생학습시설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러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외국의 박물관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하여 관람하고 학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Lee, 2001: 46~50). 온라인상의 교육프로그램도 단순한 홍보물에서부터 수준 높은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연수과정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온라인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의 서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역학 교육 기능 강화

서울역사박물관 설립의 근본 취지 중 하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서울시민의 서울시 역사와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유서 깊은 역사·문화를 간직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서울시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체성과 주체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 지역학 교육이다. 즉, 지역학은 역사, 유

적, 유물 등과 같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 심화를 통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 같은 교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공동참여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들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의 참여 주체로 서울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지역학 교육내용은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 및 서울시의 이해와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요구되는 내용이 모두 지역학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역학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예로는 평생학습도시(lifelong learning city)²⁾에서의 지역학 교육이다.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학 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시민을 육성하여 지역의 주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과 더불어 공동체의식 형성, 주체성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울시와 같은 거대도시의 경우 시민들이 해당 도시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 익명의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농촌사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Lyon, 1987),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거주하는 지

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대도시에 있어서 도시 전체 구성원의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 회복이 도시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선결 과제인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지역학 교육은 이 같은 도시 현실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과거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던 토박이 서울시민이 기보다는 외지인이 많고 현재 거주하는 서울시를 타향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서울시의 지역학 교육은 다른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정의 주요 시책 과제에 해당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설립취지와 보유한 물질·인적 자원을 고려 할 때, 서울시의 지역학 교육의 메카로서 기능하여야 하는 사명을 갖는 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역사박물관은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내용 전문가, 서울역사박물관의 기관경영자, 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서울시의 교육분야 담당자, 평생교육계 전문가, 서울시 대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학교육프로그램개발위원회(가칭)’와 ‘지역학교육프로그램개발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역학 교육프

2) 평생학습도시란 도시의 사회적 안정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하고, 해당 도시의 인적·물질·재정적 자원을 합리적·혁신적으로 동원함에 있어서 학습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이다(Longworth, 1999).

로그램 개발과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같은 지역학 교육의 대상자는 자발적 참여를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서울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각급 학교 교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서울시의 시민으로서의 정체 의식 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의 주인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강화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은 근거리에 위치한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전략의 키워드는 네트워크 체제 구축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란 둘 이상의 주체간의 자원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을 교류하는 것은 자원의 교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 있어서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상에서 교류 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다양한데 평생교육을 위하여 교류되어야 하는 자원은 평생교육에 투입 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자원으로는 물적자원, 인적자원과 더불어 정보자원, 재정자원 등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자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인사를 강사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 내 전통문화유산 기능보유자를 강사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슨트, 도우미 등 외부의 인적자원을 기관운

영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원 활용은 관련기관의 연계에 기반한 자원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인근지역에 소재한 문화·교육기관과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기관의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시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역사박물관 주변에는 역사 유적지와 문화·예술기관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벨트를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등이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성곡미술관, 일민미술관, 서울시립 미술관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신문박물관, 농업박물관 등의 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 난타극장, 정동극장 등 문화·공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문화시설 밀집지역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이 같은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의 자원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의 인적자원, 시설자원, 소장품, 프로그램 등을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자원의 연계·활용은 일방적으로 한 주체만 이익을 얻는 형태를 취하면 출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하다. 네트워크를 통한 이익은 모든 네트워크 주체들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네트워크 파트너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복수 주체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공동사업은 인근의 문화·예술 기관을 연계한 문화관광 체험학습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개별기관의 이용자들이 이 같은 파트너십에 기반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부가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인근의 문화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을 연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예술·관련 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자원 교류와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사업,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는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서울시민의 문화시설인 서울역사박물관이 오늘날과 같은 평생학습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 나가야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는 시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실천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더불어 개별 기관 경영에 있어서도 학습기능 강화

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문화기관은 기관 고유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 기관이며, 이미 대다수의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박물관은 소장품의 전시 자체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형식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주요 기능에 있어서 교육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여러 종류의 박물관 중 도시역사박물관은 일반적 박물관과 차별화된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도시역사박물관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와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또한, 도시역사박물관은 해당 지역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신장하고 구성원에게 지역민으로서의 정체감과 공동체적 의식을 고양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관점에 기반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터하여 향후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역사박물관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역학 교육 기관으로서 일반 평생교육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도시역사박물관은 다양한 지역학에 필요한 교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학예관과 학예사

가 근무하고 있고, 시민들의 학습에 활용 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단위 지자체의 평생학습기회 제고를 통해 지자체 전체의 총체적 발전을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 과제인 하나는 지역학 교육이다. 지역학은 현대의 지역공동체 해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으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지역공동체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며, 지역구성원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이다. 이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가능하며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용이한 변화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아이디어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학습 요소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려하는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즉, 서울역사박물관의 현 기능인 전시물의 수집, 소장, 전시, 연구, 교육 등 모든 기능 활성화에 교육적 요소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역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박물관의 기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가를 탐구하고,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시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이용자와 평생학습 참여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박물관 이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잠재적 이용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여 박물관의 전시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전시활동과 교육활동,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박물관과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서울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서울역사박물관이 평생학습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기관경영 관점을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관경영 전반을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의 조직구조를 평생학습을 지원 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고, 기관이 보유한 자원 중 시민의 평생학습에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재구조화하여 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의 물리적 시설과 공간배치 등을 평생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하여야 한다. 박물관 공간은 전시, 교육, 보급, 수장, 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각 공간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모든 공간은 유물의 보전기능과 더불어 문화전달자라는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정용재, 2004: 121~122). 서울역사박

물관에서도 박물관 공간이 보관과 전시 기능에서 나아가 모든 공간이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능은 박물관 기능의 중요 부분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는 이같은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은 타 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보다 지역학 교육의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여러 교육·문화 기관과 마찬가지로 서울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기관경영 관점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향후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관경영자와 실무자가 적극적 사명감과 의지로 기관경영 전반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철학회, 2001, 『박물관과 교육』, 문음사.
 김종훈, 2000,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본 박물관 교육”, 『국제이해교육』, 2000년 4월호.
 서울역사박물관, 2004a, 『2002 서울역사박물관 연보(창간호)』.
 서울역사박물관, 2004b, 『2002 서울역사박물관 연보(제2호)』.
 서울역사박물관, 2005, 『2004 서울역사박물관 연보(제3권)』.
 이보아, 2003,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역사넷.
 정용제, 2004,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박물관 공간연구”, 한국문명학회, 『문명연지』, 5(3): 113~114.
 정지현, 2006, “유아 다문화교육 자원으로서의 박물관 활용에 대한 기초 사례 연구 : 아프리카 박물관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13, No2.

한국교육개발원, 2001, 『평생교육백서』, 2001.
 Zack Pero, 2003, “21세기 도시역사 박물관의 과제”. 『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역사박물관, 6~7.
 Benn, R., 2000, “The genesis of active citizenship in the learning society”, *Studies in Education of Adults*, 32(2).
 Brooks, D. B., 2004, “What do history museum educators want to teach?”, Doctorial Thesis, Columbia University.
 Buswell, M. H., 1991. “Adult educa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museums : An analysis of resource utilization for formal programs”, Doctorial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ee, Brodie, 2001, “The hermeneutic approach to museum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Doctorial Thesis, University of Sskatchewan.
 Lee, Ching-Fang, 2002, “The museum as educational entity: The performative transformation of places into spaces”, Doctorial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Longworth, N., 1999,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London: Kogan Page.
 Lyon, L., 1987, *The community in urban society*, Chicago: The Dorsey Press.
 Mayer, M., 2005, “Bridging the theory-practice divide in contemporary art museum education”, *ProQuest Education Journals*.
 Vallance, E., 2004, “Museum education as curriculum: Four models, leading to a fifth”, *ProQuest Education Journals*.
 World Bank, 2003, *Lifelong learning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Challeng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Yang, J., 1999, “The public educational role of the national gallery of art”, Doctorial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원 고 접 수 일 : 2006년 8월 4일
 1차심사완료일 : 2006년 8월 31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6년 9월 27일